KCC 16년만에 정규시즌 우승 ‘감격’

막판 뒷심 발휘 12연승 54전 36승 18패 기록

2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남자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와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 86-71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주 KCC선수들이 추승균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KCC는 21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안양 KGC전에서 KGC를 71대86 으로 완파하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시즌 종합 54전 36승 18패 승률 0.666이라는 놀라운 성적이다.

특히 하승진은 KGC전에서 과거 NBA를 지배한 최고 센터 ‘샤킬 오닐’을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24득점 21리바운드를 기록해 KGC의 골밑을 파괴했다. 이번시즌 국내선수 최초 20-20달성이었다.

매 시즌 정규리그 종료 2~3경기 전에 우승팀이 확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시즌은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 21일까지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가 35승 18패로 공동1위를 형성하고 있어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쉽사리 예측이 불가능했다.

승패가 같을시 정규리그 상대전적으로 순위를 가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KBL의 룰 덕분에 시즌상대전적에서 3승 2패로 앞서고 있는 KCC가 같은 승패만 기록해도 우승을 차지하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다.

본인들의 승패에 의해 우승이 좌지우지 되는 중요한 상황 이였지만 KCC선수단은 우승을 향한 놀라운 집념을 보여주며 시즌 베스트 경기력으로 KGC를 대파하고 샴페인을 터트렸다.

전태풍의 복귀, 김효범과 하승진의 부활, 리카르도 포웰과 하버트 힐의 트레이드 등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 우승을 차지한 KCC엇지만 1등 공신은 역시 전 경기를 출장해 26점에 육박하는 평균 득점과 수많은 클러치 샷으로 KCC를 구한 안드레 에밋의 역할 이였다. 유일하게 추승균 감독에 의해 용병드래프트에서 단신 용병 중에 1라운드에서 뽑힌 안드레 에밋은 그의 선택에 보답이라도 하듯 다른 용병과 급이 다른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유지해 KCC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감독 데뷔시즌에 우승을 차지한 추승균 감독은 우승 인터뷰에서 언제 우승에 대한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버트 힐이 오고 나서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답했다. 또한 우승소감을 부탁하는 질문에 대해 “선수로 했던 우승보다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다. 열심히 해준 선수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무려 12연승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KCC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정규시즌과 같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근기자

본사주최 스키-스노보드대회 수상소감

“많은 선수들이 더욱더 경쟁할수 있었으면 ”

이치원 대회 종합 MVP

2016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대회의 최고의 별로 대학청년부 스키에 출전한 이치원(21)씨가 선정됐다.

작년보다 높은 실력들을 보유한 선수의 대거 참가로 치열한 경쟁이 펼처저 더욱 우승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 이 와중에 우승을 차지한건 386번이라는 선수 번호를 달고 대학청년부 부문에 출전한 이치원 선수였다. 2차시기에 기록한 23.64라는 빼어난 기록으로 스키 참가선수 60명 중 1위를 차지했다.

7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바이어슬론 선수로 동계스포츠에 입문했다는 MVP 이치원 선수는 성적부진을 이유로 인터스키로 전향해 현제 원광대학교 인터스키팀에 소속돼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데몬스트레이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는 무주 설천중, 고를 나온 무주 토박이라 그런지 무주에서 열리는 시합이 널리널리 알려져 많은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성숙한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앞으로 많은 대회가 열려 좋은 기반 갖추길”

스노보드 부분 1위 황인중

50여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한 2016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스노보드 부문에서 378번을 달고 출전한 황인중(28)씨가 스노보드 1위를 차지했다.

황인중 선수는 과거 직장이 있었지만 보드 선수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 알파인 보드 전문선수를 꿈꾸는 참가자였다.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꿈꾼 건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파른 실력 상승을 보이며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

우승소감을 묻는 질문에 황 선수는 “이런 대회를 주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주에서 많은 대회가 열려 더욱 좋은 기반을 갖추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이어 “보드에 입문해 처음부터 많은 신경을 써주신 유광복 프로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며 소감을 마쳤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피겨 박소연, 4대륙대회 4위…개인 최고점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박소연(19·단국대 입학예정)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4위에 올랐다.

박소연은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116.43점(기술점수 60.69점+예술점수 56.74점·감점 1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62.49점)과의 합산에서 178.9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178.92점은 지난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176.61점을 넘은 개인 최고점이다.

3위 혼고 리카(일본·181.78점)에게 2.86점 뒤져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지만 최근 부진에서 탈출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로미오의 줄리엣'에 맞춰 연기를 펼친 박소연은 트리플 플립 점프에서 넘어져 감점을 받았다.

박소연은 "2014년과 지난해에도 출전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포디움에 가까운 등수가 나와서 매우 기쁘다"며 "경기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이어 "쇼트프로그램을 잘해서 마지막 그룹에 들어간 게 큰 경험이 될 것 같다. 마무리까지 잘해서 기분이 좋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더했다. 개인 최고점에 대해선 "항상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가 많은 편이다. 어제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큰 실수는 없었다"며 "개인 최고점이 나와서 기쁘다"고 했다.

/김민근기자

손연재, 모스크바 그랑프리 은메달 획득

리듬체조 손연재(22·연세대)가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연재는 21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종합 부문 2위에 올랐다.

전날 후프와 볼에서 각각 18.066점과 18.366점을 얻은 손연재는 이날 곤봉과 리본에서 18.366점, 18.166점을 받아 합계 72.964점을 기록했다.

손연재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솔다토바(74.066점)에 이어 은메달의 쾌거를 일궈냈다. 72.964점은 지난해 8월 소피아 월드컵에서의 72.800점을 넘는 개인 최고점이다.

손연재는 시즌 첫 그랑프리 출전에서 고득점으로 입상에 성공하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의 선전 가능성을 높였다.

마르가리타 마문(러시아)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뛰어 넘으면서 자신감까지 얻었다. 마문은 72.432점으로 4위에 그쳤다.

/김민근기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27점차 대파…'7연승 저지'

춘천 우리은행이 부천 KEB하나은행을 대파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은행은 21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96-69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로 우리은행은 올 시즌 26승6패를 기록하며 연패를 당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올 시즌 단 한 번도 연패를 기록한 바 없다. 반면 KEB하나은행은 창단 후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7연승이 깨지며 18승13패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쉐키나 스트릭렌은 이날 21득점 8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임영희와 박혜진도 각각 19득점 3리바운드, 14득점 4어시스트를 보탰다.

우리은행은 경기 초반부 압도적으로 KEB하나은행을 몰아붙였다. 우리은행은 박혜진과 임영희를 앞세워 1쿼터를 20-10으로 마무리 한 뒤 경기 종료 전까지 KEB하나은행의 추격을 허용치 않았다.

/김민근기자